

매출절벽과 순환휴직, 그리고 MSC 컨선 수주

코멘터리

대표 차트

CMA-CGM은 높쳤지만...

① 지난주 현대중공업이 CMA CGM의 22,000TEU 9척은 중국에 뺏겼지만, 곧이어 MSC의 22,000TEU 11척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6척, 5척 수주했습니다. DF 엔진이 아닌 Scrubber를 장착하기로 했고, 신조선가는 \$145m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② 또한 삼성중공업은 캐나다 티케이로부터 셔틀탱커 2척을 척당 \$137m에 총 3,092억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해 누적 52억\$로 BIG3 중 가장 많고, 캐파 7조원에도 준하는 양호한 수주를 달성 중입니다.

매출절벽과 이에 순환 휴직의 대응이...

③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7월 매출액이 공정공시되었는데, 각각 전년동기대비 -43%, -33% 작았습니다. 가파른 매출 절벽이 진행중이며 연말로 갈수록 역성장폭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④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반납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9월부터 연월차 사용 촉진, 대체 교육, 순환 휴직/휴업, 인력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건조량 감소에 따라 대거 유타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절벽이 진행됨에 따른, 하반기 조선사들의 고정비 부담 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이란과 10.6조원 기본여신협정(FA)을 체결했습니다...

⑤ 1월 이란 경제 제재가 완화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여신제공 협정이어서, 향후 한국 조선사 및 건설사들의 이란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가 커버하는 조선업종의 경우 NITC, IRISL 과의 몇몇 수주 예정건들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조선사와 건설사가 모두 전방 시장인 피팅 업종에도 숨이 트이는 뉴스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팅 업종도 조선사들의 실적 하강과 비슷한 흐름이 기다리고 있어, 전방 회복 기대감을 부여할 것인가 vs. 실제 수주 증가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인가의 고민 및 논란이 계속될 듯 합니다. 당사는 수주 및 실적 턱업을 확인하자는 의견입니다.

STX엔진의 매각을 시작했는데...

⑥ 8개의 FI, SI가 참여한 가운데 STX엔진 매각이 시작되었고 9월 중순 본입찰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STX엔진을 들여다보다가, STX엔진의 시가총액이 3,658억원인데 두산엔진 시가총액은 2,78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새삼 놀라게 됩니다. 두산엔진은 두산bantek의 10.55% 지분(3,750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영업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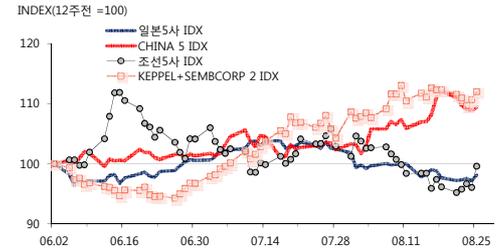
STX엔진은 보기엔 시장을 현대중공업과 과점, 두산엔진은 주기엔진 시장을 현대중공업과 양분한 회사입니다. 두산엔진이 너무 싸보입니다. 더구나 최근 LNG추진선의 개화기가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두산엔진과 STX엔진의 장기 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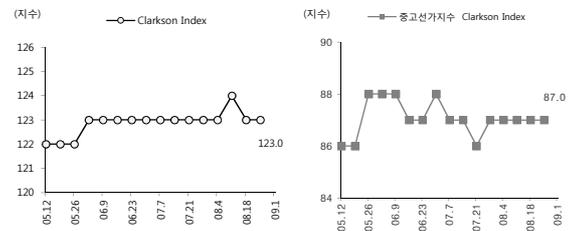
〈표〉 두산엔진 2Q17 Review 연결 (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매출액	1,735	1,773	1,832	2,007	1,379	744	889	694	803	866	921
영업이익	193	117	255	299	70	1	-40	-64	4	25	34
세전이익	-583	-249	272	297	208	-5	-52	-166	-188	18	25
순이익	-513	-250	201	225	190	-5	-42	-125	-181	15	19
영업이익률	11.1%	6.6%	13.9%	14.9%	5.1%	0.1%	-4.5%	-9.2%	0.5%	2.9%	3.7%
세전이익률	-33.6%	-14.0%	14.9%	14.8%	15.1%	-0.7%	-5.8%	-23.9%	-23.4%	2.1%	2.7%
순이익률	-29.6%	-14.1%	11.0%	11.2%	13.8%	-0.7%	-4.8%	-18.1%	-22.6%	1.7%	2.1%

〈표〉 STX엔진 2Q17 Review 별도 (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매출액	1,493	1,633	1,221	1,295	1,075	705	711	633	530		
영업이익	206	209	102	107	42	-57	7	5	4		
세전이익	134	168	75	91	-74	-938	-57	36	-17		
순이익	97	127	58	64	-59	-942	-74	35	-26		
영업이익률	13.8%	12.8%	8.3%	8.2%	3.9%	-8.1%	1.0%	0.8%	0.8%		
세전이익률	9.0%	10.3%	6.2%	7.0%	-6.8%	-133.0%	-8.1%	5.7%	-3.2%		
순이익률	6.5%	7.8%	4.8%	4.9%	-5.5%	-133.5%	-10.5%	5.5%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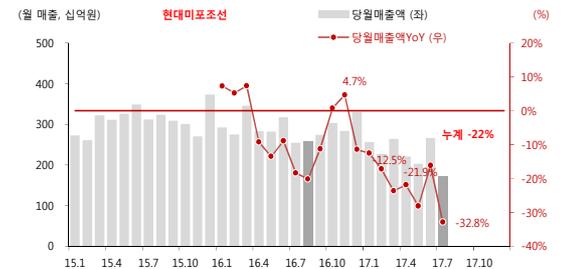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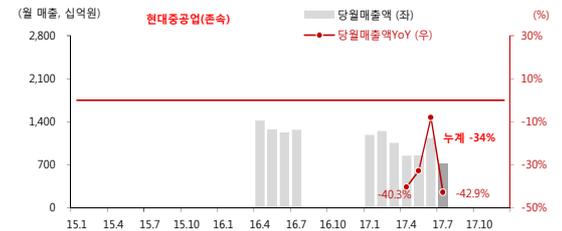
▶ 한/중/일/싱 주가 추세:



▶ 신조선가치수 & 중고선가치수



▶ 7월 매출 현대중공업 YoY -43%, 현대미포 YoY -33% 감소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매출 절벽

- ▼ 현대중, 9월초 순환휴업 시행...장기 휴직도 검토 → 조선업
- ▽ 7월 매출 현대중공업 YoY -43%, 현대미포 YoY -33% 감소

▲ SHI 수주모멘텀 vs. 씨드릴 | 싼 두산엔진

- ▲ MSC의 22,000teu,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11척 나눠 수주: Scrubber 장착키로 → 삼성중공업
- ▲ 삼성중공업 서틀탱커 수주 공시
- ▷ Seadrill Chapter 11 가는가?: 삼성중공업 드릴쉽 2기 → 삼성중공업
- ▷ STX엔진 매각 예비실사 '적정가치'는 → 두산엔진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치수와 중고선가치수 모두 보합: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하락

- 이번주에도 대다수 선종/선형 신조선가가 보합세 유지하며 지수는 제자리
- ; 그러나 19,000teu와 13,000teu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하락세 반영: 최근의 CMA-CGM 계약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

▷ OOCL, 두 번째 2만TEU급 컨선 시동

- http://lnr.li/WFhxd
- 홍콩선사인 OOCL이 2만1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인도받음: 2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만1413TEU급 컨테이너선 명명식
- OOCL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중공업에 등급선박 6척을 발주: 선가는 척당 1억5680만달러 총 9억5160만달러 정도
- 선복량이 2만1000TEU를 넘어선 건 이를 선박이 최초
- >> 중국 외교교 조선사들이 가져간 22,000teu가 인도되면 세계 최대 컨테이션 신기록이 바뀌게 됩니다.

△ DSME 건조 중인 FSRU-MAX, 용선처 터키에 확보

- MOL은 2013년 프랑스 Engie 및 Marubeni와 용선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5년 취소된 후 우루과이 Gas Sayago로 정해졌지만 또 취소된
- FSRU-MAX(263k CBM)이 터키 Batos에 2년~3년 용선계약이 확정
- Batos는 총 2기의 FSRU 도입을 검토 중: 파이프라인 장기 수입계약 종료에 따라 일부 FSRU를 통한 수입으로 전환 중
- 터키는 작년 12월 최초로 로컬 건설사 Kolin과 Kalyon을 통해 2006년 건조 FSRU(145k)를 도입한 바 있음
-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FSRU-MAX의 용선처가 확보됨으로써, 인도 지연 등의 우려가 소멸되었습니다.

(6월2주) △ MOL, DSME에서 건조 중인 FSRU-MAX 11월 인도키로

- 아래와 같이 용선처 투입이 계속 지연 중인 MOL의 FSRU-MAX에 대해서
- 일단 프로젝트 가동이 2018년으로 1년 연기되었지만, 현재는 2019년 또는 2020년까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함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에게 건조 중인 FSRU-MAX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서,
- 올해 11월에 인도된 이후에도 짧게 1년~3년 단기 용선 투입처를 확보를 긍정적으로 예상한다고 MOL 담당자는 설명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시추(RIG) 시장

▷ Seadrill Chapter 11 가는가?

- Seadrill은 현재 채권자들과 재무 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합의 기한은 9월 11일
- 총 부채 규모는 110억\$: 이 중 80억 달러가 이자 발생 부채
-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되면 Chapter 11을 통해 실제 구조조정이 진행
- Seadrill은 동사의 계열사인 Archer, Seadrill Partners, Seamex등에 대해 동사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 조치 해 놓았다고 언급
- Seadrill이 지난 분기보고서를 통해 밝힌 구조조정 방안에는 10억\$의 추가 자본 조달, 은행 채권에 대한 만기 5년 연장, 채권 손실 처리 및 전환 등이 포함
- 또한 Seadrill은 "현재 주주들이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보상은 없거나 최저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
- 동사가 보유한 리그 36기 중 17기가 유희상태이며, 전체 Seadrill 그룹에서 보유한 리그 52기 중에서는 20기가 유희상태
-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동사가 최근 Wintershall과 semi-submersible \$6m 용선 계약 체결, ...
- ... Statoil과 ultra-deepwater \$26m 계약 체결, Llog Exploration과 ultra-deepwater \$31m 추가 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업황 회복의 김새가 보임
- 장기간의 Offshore向 저투자가 업황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 Chapter 11: 파산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게 법정관리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의 기회를 주는 법률제도

△ 시추시장 Uptick

- Clarksons Platou Offshore에 따르면, 7월 24개의 RIG 용선계약이 체결되며 수요 증가를 확인: 11개 Floater + 7개 Jackup, 24개 중 7개는 장기 용선 계약
- Floater의 경우 전월대비 4개 증가한 136개의 용선 수요를 보였고, 가동률도 63%로 2016년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Jackup은 전월 323개에서 이번달 344개로 수요가 늘었고, 가동률도 1월 63%대비 4%p 개선된 67%를 기록
- 다만 dayrate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Ultra-Deepwater RIG는 \$431천/일에서 최근 \$166천/일까지 하락했고, 잭업리도 3년전 173천/일에서 최근 100천/일 수준에 그침

▶ 업황

▷ NITC, 원유 저장용 VLCC 스크랩 더 이상 없을 듯

- 이란 연말까지 원유 생산량을 현재 4백만b/d로 0.2백만b/d 늘릴 계획이어서
- 최근 노후 VLCC를 스크랩해오던 이란 NITC는, 남은 3척의 1996년 건조 VLCC 스크랩은 일단 중지할 예정
- 2백만 배럴의 원유 저장 탱커(VLCC가 필요)
- 작년 경제 제재가 풀린 NITC는 노후선 교체에 위한 선대 리뉴얼을 준비해왔음
- 최근엔 신조와 중고선 매입 중에서 고민 중



한국 조선업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②지난주 없음

N/A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MSC의 22,000teu,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11척 나눠 수주: Scrubber 장착키로

- MSC(Mediterranean Shipping Co.)는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6척, 5척의 22,000teu, 총 15억\$ 발주가 확정적
- 조선사측은 노 코멘트, MSC 담당자는 응답 없음
- CMA CGM이 항후 2주 내에, DF(Duel Fuel)엔진 또는 LNG-Ready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MSC는 Scubber를 선택
- 신조선가는 Scrubber \$5m을 포함해 척당 \$145m
- 특이한 점은 MSC는 신조발주와 함께 기존 14,000teu를 17,000teu로의 Upscale을 두 조선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함

▲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수주 공시

△ 삼성중공업, 캐나다 티케이로부터 탱크선 2척 수주
<http://lnr.li/JK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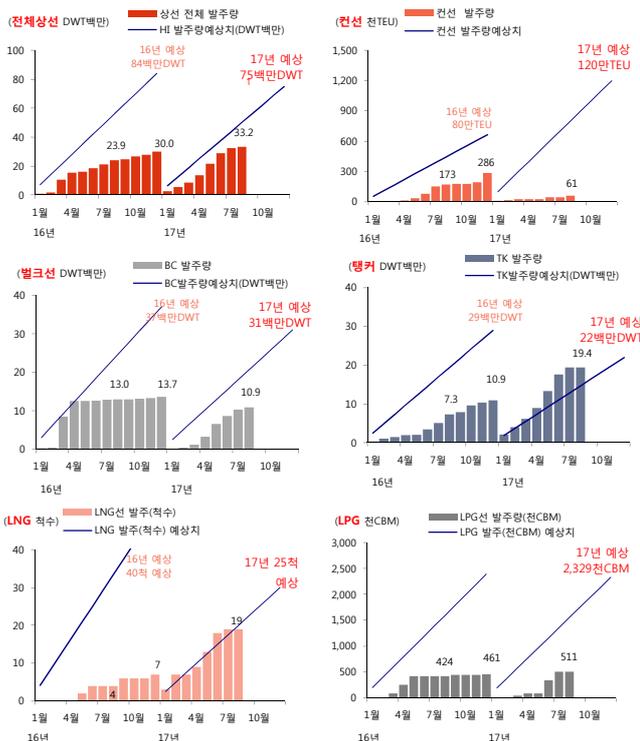
25일 캐나다 선사인 티케이(Teekay)와 3092억원 규모의 셔틀탱크선 2척의 건조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2020년 1월까지 납품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계(1~7월) 수주액은 52억\$(약 5772억원)을 기록

△ 북미의 잉여 Ethane 수출-수입 수요 증가, VLEC 발주까지 이어질까?

- 인도 Reliance의 북미 Ethane 수입을 위한 VLEC 6척이 2016년12월 1호선 운항 후 현재 6척 모두 가동 중
- MOL 용선 발주, 1.6MTPA를 Enterprise Products Partners로부터 수입
- 이후 중국의 Oriental Energy가 5척의 VLEC를 신조투자 진행했지만 1척 건조에 그침
- 북미-유럽 간에는 27k CBM의 소형 가스선이 담당하지만, 북미-아시아 운항은 VLEC의 몫
- EPP-Reliance의 Ethane 장기구매계약 이후 시장은 잠잠했지만
- 북미에서 올해 6개의 에탄크래커가 연말까지 가동되는 등 잉여 Ethane의 판매 협의도 증가하고 있어, VLEC 신조투자도 이어질지 관심: 항후 Ethane S&P 경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듯
- 최근 신조선가 하락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던 \$120.6m보다 낮은 VLGC에 \$25m~\$30m 높은 \$95m~\$100m의 척당 선가일 것으로 판단됨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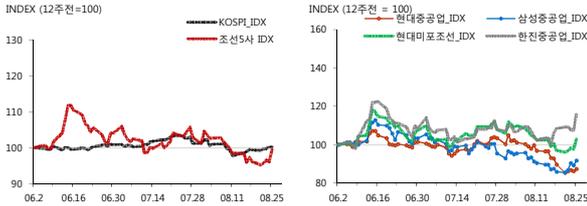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08월1주								
중국	Hyundai HI (Ulsan)	17.7.31	유럽	Vitol Group	LPG	84k cu.m.	2019	2
중국	Jiangsu New YZJ	17.7.17	유럽	Evalend Shipping	BULK	82k DWT	2018	2
일본	Namura Shipbuilding	17.8.1	유럽	Pleiades Shpg. Agcy.	BULK	85k DWT	2019	2
17년08월2주								
민영	Zhejiang Ouhua SB	17.8.4	유럽	Cape Shipping	CONT	3k TEU	2019	2
중국	Xiamen Shipbuilding	17.5.1	유럽	Siem Car Carriers	PCTC	8k Cars	2019	2
일본	Miura Zosenho	17.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k DWT	2018	1
		17.4.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1k DWT	2018	1
				Fuji Kaiun	BULK	2k DWT	2018	1
				Taiyo Kisen	BULK	6k DWT	2018	1
	Kanrei Zosen KK	17.5.1	일본	Unknown Japanese	PTK	5k DWT	2018	1
	Shin Kochi Jyuko	17.4.1	일본	Mitsui & Co	BULK	38k DWT	2018	1
				Dowa Line Co Ltd	BULK	15k DWT	2018	1
				Unknown	BULK	38k DWT	2019	1
	Sumitomo (Yokosuka)	17.5.1	아시아	Unknown Singapore	TK	112k DWT	2019	2
	Naikai Innoshima	17.4.1	Unknown	Unknown	PTK	19k DWT	2019	1
	Kawasaki HI Kobe	17.7.4	일본	Kenya Ports Auth.	FERRY	#VALUE!	2020	1
	Kanda Zosenho	17.4.1	Unknown	Unknown	BULK	7k DWT	2018	1
					RORO		2019	1
17년08월3주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8.15	중국	SITC	CONT	1k TEU	2018~2019	4
		17.5.1	중국	SITC	CONT	1k TEU	2018	2
일본	I-S Shipyard	17.4.1	Unknown	Unknown	BULK	7k DWT	2019	1
17년08월4주								
민영	Jiangsu New YZJ	17.7.24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8.25	유럽	SOCATRA	PTK	8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7.7.21	중국	Shun Yuan Group	OTHERS	7k DWT	2018	1
	Hin Lee Shipyard	17.3.1	아프리카	Kenya Ports Auth.	OFF-기타	4k HP	2018	1
		17.2.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2017~2018	4
		17.1.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4k HP	2018	2
	Fujian Southeast SB	17.8.18	중국	Fujian Anda Shpg	BULK	21k DWT	2019	1
	Aulong SB Co	17.8.2	중국	Zhuhai Ferry	FERRY		2018	1
일본	JMU Ariake Shipyard	17.7.1	일본	Mitsubishi Ore Tpt	BULK	208k DWT	2020	1
	Oshima Shipbuilding	17.8.25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85k DWT	201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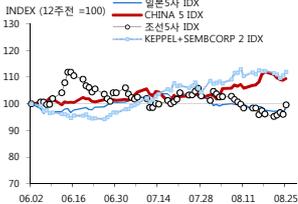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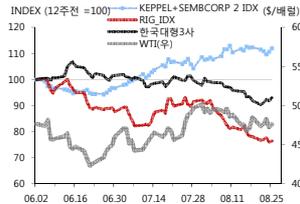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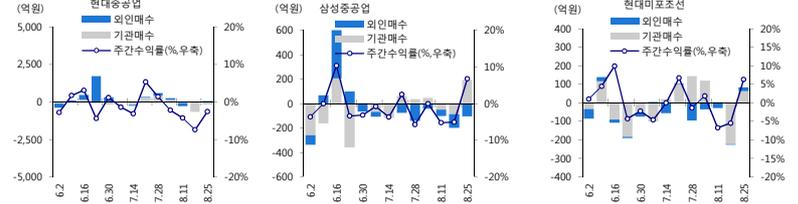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한국 수출입은행, 이란에 10조6천억원 여신 제공 합의

<http://nr.li/px9Z0>

한국 수출입은행은 24일 이란중앙은행과 94억 달러(약 10조6천465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기본여신협정(FA)을 체결
 지난해 1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 이후 이란이 체결한 여신제공 협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
 : 여신은 이란 정부의 보증하에 정부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한국 기업의 금융 지원에 사용
 이란 내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해도 아직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가 풀리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
 그간 '스냅백'(핵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 복원) 조항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논의가 교착
 스냅백 상황이 오면 여신 상환을 우호적으로 우선 협의하되 결렬될 경우 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

△ 대우조선, 플랜트입찰서 잇단 '고배'...현대·삼성중 2강 재편?

<http://nr.li/ifta1>

글로벌 해양플랜트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잇따라 배제
 해양플랜트 부문 만큼은 '빅3'가 아닌 '2강'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
 BP는 아프리카 토르투(Tortue) 가스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 입찰을 위해 이달 초 8개 잠재 후보들에게 입찰요청서를 발송: 대우조선은 입찰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
 베트남 석유회사인 '푸꾸옥(Phu Quoc) 페트롤리움'이 발주하는 '블록B' 가스 프로젝트에서도 제외
 사람이 많이 쓰는 조선업계에서도 해양플랜트 건조는 가장 노동집약적인 공정"이어서
 "현재 건조중인 해양플랜트가 속속 인도되고 나면 당장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대규모 실적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 조선3사 R&D비용 삭감...중에 기술력마저 밀리나

<http://nr.li/PYkUz>

국내 조선 3사가 최근 2년 새 연구개발(R&D) 비용을 26%나 삭감: 국내 조선 3사의 지난 2016년 R&D 비용은 3,559억원으로 2014년의 4,805억원에서 크게 줄
 특히 3사는 올 상반기 R&D 비용을 더 줄여 1,065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림
 대우조선의 경우 2014년 R&D 목적으로 917억원을 썼지만 2016년에는 604억원에 불과
 현대중공업 역시 같은 기간 2,836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연구개발비를 대폭 줄임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5년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였으나 올해 6월 기준 0.8%까지 떨어짐

▷ 중국 LNG 추진선 인도 가능할까?

<http://nr.li/FJhOj>

중국 COSCO Shipping과 얼라이언스 관계인 CMA-CGM은 LNG추진방식의 2만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
 추진엔진은 Wartsila가 중국으로 사업부를 매각했던 Sulzer의 XDF엔진(Otto cycle 연소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한국 조선소에게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계약 조건
 한국 조선업이 경험했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인도 지연의 폐해는 머지않아 중국 조선업에서 다시 목격하게 될 것
 중국 조선업은 LNG선 건조경험이 13척 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중기터빈을 탑재한 경험
 후동중화조선이 최근에서야 4ST 중속 발전기(DFDE)가 탑재되는 LNG선을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정상인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공업, 노조에 '기본급 20% 반납' 요구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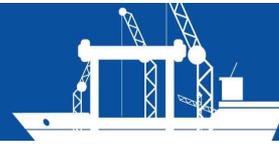
<http://nr.li/dx6AF>

회사는 기본급 반납을 철회하는 대신, ...
 ... 9월부터 연월차 사용 촉진, 직무역량 향상 교육, 휴직·휴업, 인력구조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제안
 임금 부분과 관련해선 2016년과 2017년 모두 동결하되, 각각 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을 제시
 성과금은 2016년 230%, 2017년 노사 간 논의로 별도 확정 후 지급하자는 제안
 격려금은 2016년 약정임금 100%+150만원, 2017년 100%+100만원을 제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 이상 등을 제시

▼ 현대중공업, 기본급 반납 철회 대신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http://nr.li/ZuCOc>

사측은 기본급 20% 반납 제안을 철회했지만
 회사 생존과 심각한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과 훈련, 유무급휴직, 인력 구조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



▼ 현대중, 9월초 순환휴업 시행...장기 휴직도 검토

<http://nr.li/AsaD8>

현대중공업은 전일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다음달 초부터 사업부별로 순환휴업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통보
또 직무능력 향상 필요 인력에 대해 3주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휴업보다 기간이 긴 휴직도 검토
이미 엔진 부문과 해양플랜트 부문 내 일부 직원은 지난 5월 순환휴직과 직무향상교육을 받은 바

▷ 정몽준, 현대중공업 지분 253억원에 전량 처분

<http://nr.li/8AmR0>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인 현대중공업 주식 17만9천267주(0.32%)를 23일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전량 처분했다고 공식
주당 처분단가는 14만1천75원으로 처분 금액은 총 252억9천만 원 가량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남은 소량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이 주식 매매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

▷ 현대로보틱스 지배력 강화...순환출자 해소는 미완

<http://nr.li/YzdWJ>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지분을 모두 현대로보틱스에 넘겼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식 양도
지난 18일 현대일렉트릭 주식 29만 5978주(7.98%), 현대건설기계 주식 28만 5921주(7.98%)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전량 처분
블록딜을 통해 약 1932억 원을 확보
현대로보틱스는 지분 매입으로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지분율을 각각 35.6%, 32.1%로 높이며 지주회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블록딜에서 현대중공업 지분이 제외된 건 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 때문으로 풀이
업계에선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유예 기간인 2019년 4월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지분의 처리 방법을 검토할 것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캐나다 티케이로부터 탱크선 2척 수주

<http://nr.li/JKasP>

아래 수주 섹션 참조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 "특수선사업 분할 안해...자구계획 차질 없다"

<http://nr.li/9Nhiw>

경영정상화 자구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특수선사업(방위산업) 부문 매각 작업을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
특수선사업 부문 분할을 통해 약 3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 예비검토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제시안은 시설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가' 판정
특수선사업 부문은 일부 공정을 상선/해양 부문 등과 공유하고 있어, 분할 시 방위산업 특수성 때문에 특수선사업만을 위한 별도 공장을 신설해야 함
기존 자구안에 없었던 거제 지역 직원 숙소 등 약 7천억 원 규모의 지역 자산,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체 자구안 이행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

△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에 3천톤급 잠수함 핵심장비 공급

<http://nr.li/iI2WQ>

최근 현대중공업과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 1차사업 3번함'에 설치될 2150억원 (대형 LNG선 1척 가격에 맞먹는 규모) 규모의 3중 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
대우조선해양이 공급할 장비는 핵심기술연구개발 및 도급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3중 장비로 ...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3000톤급 잠수함' 1, 2번함에 먼저 탑재될 예정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장보고-III 1차 사업을 수주해 2척의 잠수함을 건조 중

▷ 대우조선해양, 나이지리아 해운사업 철수

<http://nr.li/JVNw2>

지난 6월 말 '나이다스 마린(NIDAS Marine Ltd.)'에 대한 지분 49%와 '나이다스 선박 서비스(NIDAS Shipping Services Ltd.)' 지분 13%를 모두 62억원에 매각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 6월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NNPC)와 합작해 해운회사인 나이다스를 설립
본업과 관련없는 비핵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방침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신규수주 안 하나 못 하나

<http://nr.li/wXf0>

정 사장이 재무상황과 향후 매각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신규수주에 나서지 않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 있음
대우조선해양이 신규수주를 무조건 따 내야만 회사생존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반론
한 연구원은 "채권단 시각에서 바라보면 대우조선이 공격적 신규수주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잔고를 제때 발주처에 인도해 건조대금을 확보하는게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말

▶ 중소형 조선사

▷ 정부, STX조선-성동조선 합병 추진..."경제장관회의서 논의"

<http://nr.li/tQaLY>

정부는 이번 주와 다음 달 초, 실무진급 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조선사 지원 방안을 논의
정부는 일단 두 조선사의 회사 규모를 기존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할 방침
관계자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합병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
... "두 조선소는 사실상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조선업 턴어라운드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두 조선소의 합병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

▼ ▷ 정부, STX조선과 성동조선 합병추진 '사실 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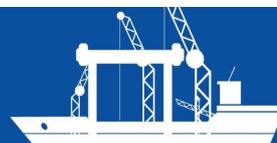
<http://nr.li/ClIIP>

최근 불거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관계기관간의 논의나 검토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

▷ 중소조선사에 1000억 지원... RG에 발목 잡힌 선박 수주 풀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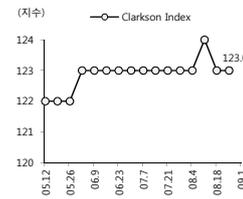
<http://nr.li/k72ki>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 조선사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엔 이 같은 sollim 현상이 더 심함: 상반기 RG 발급액을 보면 대형 조선사가 2.1조원의 RG를 발급받은 반면 중소 조선사는 199억원에 불과
51개 중소 조선사 중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선박건조 능력이 있는 30여 개 조선사가 수혜를 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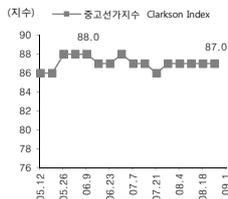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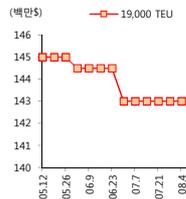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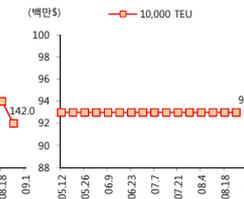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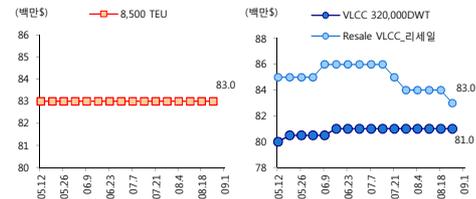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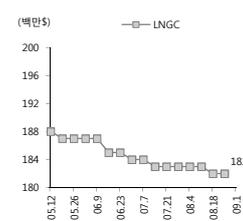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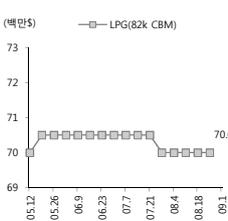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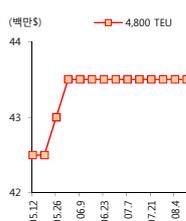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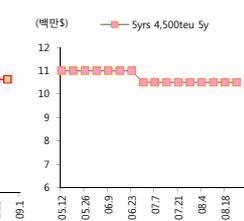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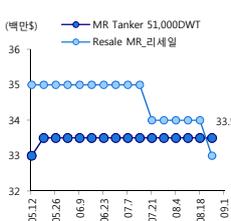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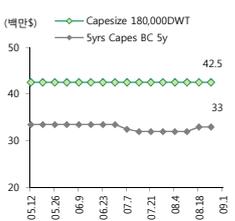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 MR탱커 신조 vs 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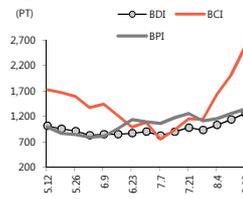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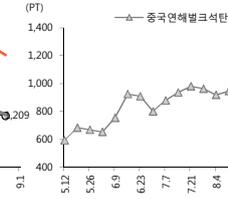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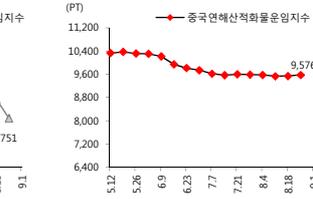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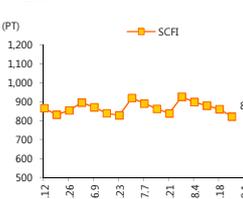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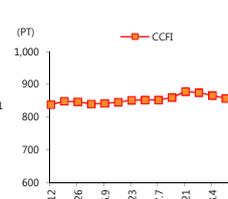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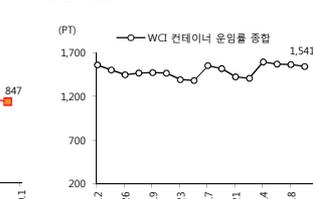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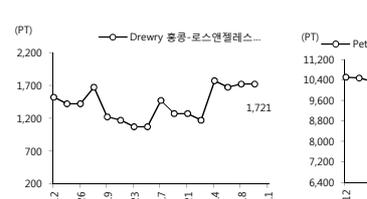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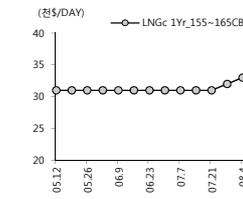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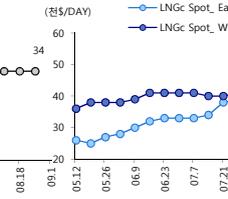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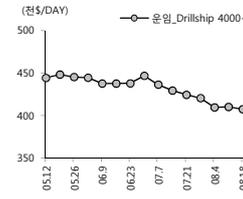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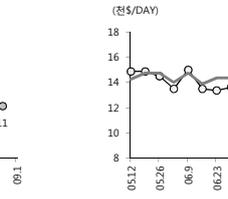
▶ LNG선 SPOT



▶ 드릴십



▶ 벌크선 - 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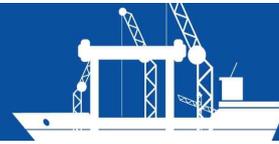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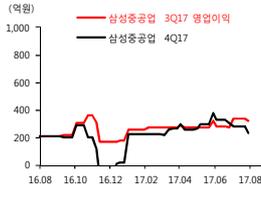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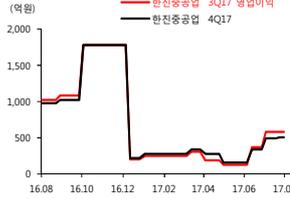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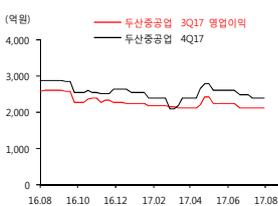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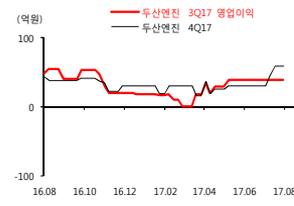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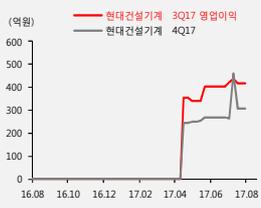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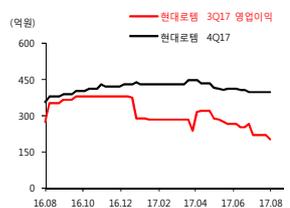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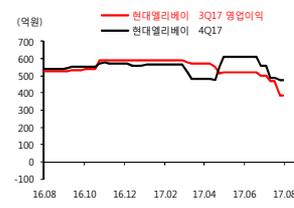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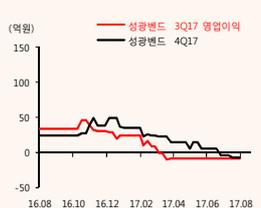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29	17.08.05	17.08.12	17.08.19	17.08.25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1,214	13,173	5,558	6,211	6,478	5,812	5,985	5,985	12,065	94%	86%	12.6	152,000
	삼성중공업	260	283	307	285	277	270	270	270	276	-3%	0%	40.0	11,050
	현대미포조선	5,627	4,027	3,963	4,776	7,369	8,676	9,201	9,201	9,468	98%	28%	11.0	104,500
	한진중공업	454	157	-17	-269	-123	-123	-123	-289	-289	적지	적지	-16.6	4,805
두산	두산중공업	1,739	1,683	1,457	1,454	1,425	1,061	1,047	1,023	840	-42%	-41%	21.4	17,950
	두산인프라코어	784	785	813	798	832	870	878	878	878	10%	6%	9.0	7,930
	두산엔진	188	283	172	178	198	188	174	174	174	-2%	-12%	22.9	4,000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4,988	28,411	30,732	32,313	31,298	31,298	31,298			11.8	369,500
	현대일렉트릭	0	0	27,762	27,046	28,256	26,902	27,300	27,300	27,300			10.9	297,000
	LS산전	3,385	3,500	3,596	3,673	3,862	3,862	3,862	3,862	3,862	5%	0%	15.3	59,100
	현대엘리베이터	5,703	5,597	5,307	5,326	5,351	4,991	4,926	4,569	4,569	-14%	-15%	11.4	52,300
방산	현대로템	756	729	718	639	523	523	523	523	523	-18%	0%	34.7	18,150
	한국항공우주	2,619	2,565	2,520	2,479	2,200	2,200	2,200	1,748	1,748	-29%	-21%	24.8	43,350
	한화테크윈	2,417	2,273	2,270	2,232	1,964	1,964	1,963	1,954	1,954	-12%	-1%	19.5	38,100
피팅	LIG넥스원	3,848	3,836	3,768	3,733	4,557	4,557	4,557	4,651	4,651	25%	2%	16.9	78,700
	성광벤드	123	38	-44	-83	-82	-82	-100	-100	-100	적지	적지	-96.5	9,70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1.4	9,700
하이록코리아	1,873	1,890	1,913	1,888	1,837	1,837	1,874	1,874	1,837	-3%	0%	11.8	2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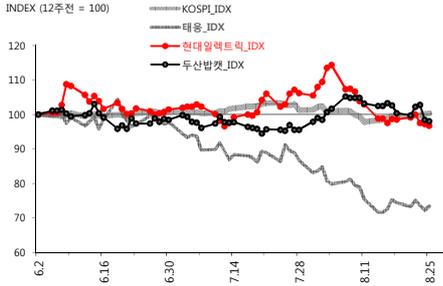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29	17.08.05	17.08.12	17.08.19	17.08.25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31,822	309,552	252,330	213,100	208,977	205,482	205,482	205,482	211,387	6%	1%	0.7	
	삼성중공업	17,225	17,500	18,160	18,788	18,735	18,711	18,711	18,711	18,712	1%	1%	0.6	
	현대미포조선	108,677	108,798	113,259	113,175	118,081	119,596	119,596	119,596	119,203	8%	3%	0.9	
	한진중공업	11,120	10,447	10,278	8,453	8,810	8,810	8,810	8,616	8,616	-3%	2%	0.6	
두산	두산중공업	31,937	31,093	31,611	30,703	30,765	30,118	30,164	30,126	30,089	3%	6%	0.6	
	두산인프라코어	10,994	10,565	10,409	10,514	10,622	10,868	10,616	10,616	10,616	8%	10%	0.7	
	두산엔진	7,763	7,700	7,857	7,877	7,945	7,949	7,956	7,956	7,956	2%	2%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23,490	231,663	231,741	234,252	232,512	232,512	232,512	13%	15%	1.6	
	현대일렉트릭	0	0	232,879	232,450	232,690	225,780	225,780	225,780	225,780	12%	14%	1.3	
	LS산전	38,865	39,006	39,174	38,940	39,086	39,086	39,086	39,086	39,086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38,876	38,291	38,145	37,757	37,757	37,050	36,969	35,026	35,026	13%	14%	1.5	
방산	현대로템	17,125	17,070	17,174	17,059	16,964	16,964	16,964	16,964	16,964	3%	5%	1.1	
	한국항공우주	16,591	16,500	16,330	16,290	15,869	15,904	15,904	15,447	15,447	11%	15%	2.8	
	한화테크윈	48,838	47,326	45,533	45,707	45,246	45,246	45,246	45,246	45,217	4%	6%	0.8	
피팅	LIG넥스원	31,343	31,320	31,472	31,402	32,127	32,127	32,127	32,210	32,210	14%	13%	2.4	
	성광벤드	16,494	16,536	16,529	16,554	16,540	16,540	16,524	16,524	16,524	-1%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3,643	24,153	24,035	23,970	23,776	23,776	23,849	23,849	23,849	8%	8%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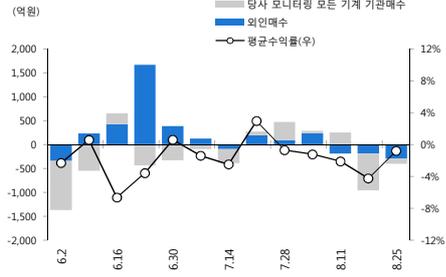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공통

▲ 한국 수출입은행, 이란에 10조6천억원 여신 제공 합의

<http://lnr.li/px9Z0>

한국 수출입은행은 24일 이란중앙은행과 94억 달러(약 10조6천465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기본여신협정(FA)을 체결 지난해 1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 이후 이란이 체결한 여신제공 협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 : 여신은 이란 정부의 보증하에 정부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한국 기업의 금융 지원에 사용 이란 내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해도 아직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가 풀리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 그간 '스냅백'(해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 복원) 조항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논의가 교착 스냅백 상황이 오면 여신 상환을 우호적으로 우선 협의하되 결렬될 경우 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

탈원전 & ESS

▽ 격납고 안 증기발생기에서 망치 나온 한빛원전 4호기 폐쇄하라

<http://lnr.li/D65I>

환경단체들이 격납고에 구멍이 확인된 데 이어 격납된 핵심시설인 증기발생기 안에서 망치까지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의 폐쇄를 촉구 한수원은 지난 18일 한빛 4호기의 증기발생기 검사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 4개를 발견해 2개를 제거했으나 2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밝힘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은 제작·정비 때 들어가 내부 구조물 사이에 낀 상태로 고정

▲ 현대일렉트릭, '홀로선 5개월' 어땀나

<http://lnr.li/CGGXN>

관계자는 23일 "독립이후 가장 드라이브를 건 사업은 ICT 에너지솔루션 신사업"이라며 "ESS와 BEMS, FEMS 등 성공적인 사업 런칭으로 인해 앞으로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 독립과 동시에 프리미엄 브랜드 'INTEGRICT(인티그릭)'을 런칭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림 4월에 강릉 씨마크호텔의 BEMS를 성공적으로 구축, 상업시설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등급 설치인증 5월에는 현대오일뱅크 FEMS 1차 설치 확인서를 획득 7월에는 '에너지저장장치'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을 수주 7월말에는 고려아연 제련공장에 저장용량 15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 사업 수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 시장에서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올해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공공기관 건물에는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면서 BEMS(Building EMS)내수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

큰 기계들

▲ 현대로템, 캐나다 철도시장 본격 진출

<http://lnr.li/6Hy3P>

현대로템은 캐나다 동부 퀘벡주에 현지법인인 'Hyundai Rotem Quebec Inc.'를 설립: 현대로템의 100% 자회사 형태로 신설 캐나다에 법인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 현대로템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 터키, 브라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에도 지분 100%를 출자한 법인을 운영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철도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며 ... "시행령 외엔 입찰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투입된 자본금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모두 대외비"라고 설명 현대로템은 2009년 캐나다 밴쿠버에 무인 경전철 40량을 제작해 판매: 800억 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 구매 입찰...유찰

<http://lnr.li/SDBXC>

1천345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입찰에 우진산전과 현대로템 등 2곳이 응찰했으나 한 업체가 입찰가를 내지 않아 유찰 다음 달 6일까지 제안서를 다시 받은 뒤 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 이번 입찰은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차륜(車輪)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고무와 철제바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고무는 우진산전이, 철제는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 공급 2019년 6월까지 차량 제작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납품



▶ 현대엘리 4년만에 회사채 발행...연지동사옥 매입용

<http://nr.li/o2AFo>

내달 15일 3년 만기로 1천억원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

현대그룹은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2012년 2천262억원을 받고 코람코자산운용에 연지동 사옥을 매각한 바

현대그룹은 이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코람코운용이 재매각에 나설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조건대로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섀

코람코운용은 올해 초 연지동 사옥에 대한 매각을 시작했고, 지난 6월 2천500억원을 제시한 JR투자운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현대엘리베이터의 현금성 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3천700억원 수준이나 저금리기조를 반영해 회사채로 인수자금의 일부를 대려는 것으로 추정

현대엘리베이터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는 지난 2013년 사모로 150억원 짝은 이후 4년 만: 공모 회사채 기준으로는 5년 만

여타 기계들

▶ K2전차 양산, 변속기 결함으로 8개월째 중단

<http://nr.li/FCP6V>

노무현 정부 당시 파워팩 국산화 결정을 내리면서 2005년 파워팩 국내 개발이 시작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 변속기는 S&T중공업이 만들고 조립은 현대로템이

처음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는 엔진에서 잇단 결함이 발생하면서 2012년 12월 1차 양산분 100대는 독일 MTU사 파워팩을 수입

방사청은 2014년 12월 국산 파워팩을 개발 완료 후 이를 2차 양산분 106대에 장착하기로

당시 부품업체들에 '내구성' 기준으로 320시간(9600km) 동안 결함 없이 작동할 것을 요구

S&T중공업 입장= 회사 측은 지난 7월 국산 변속기 최초생산품 내구도 시험에 대한 국방규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방사청 입장= S&T중공업의 이같은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

: S&T중공업이 기존에 생산·납품한 K9자주포 변속기와 K200A1장갑차의 경우도 동일한 내구도 시험을 맞췄다는 것

▶ STX엔진 매각 예비실사 '적정가치'는

<http://nr.li/8YJ7r>

STX엔진 매도자는 이번주 숏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가상데이터룸(VDR)을 개방할 방침

: 주어진 실사 기간은 4~5주이며, 이르면 내달 중순께 본입찰이 치러질 전망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를 합쳐 총 8곳. 앞서 예비입찰(2일)에 뛰어난 응찰자 중 1곳만 제외

업체에선 한화그룹과 한앤컴퍼니 등이 본입찰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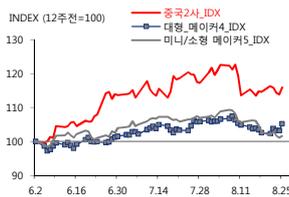
민수, 특수, 전자통신 등 3개 사업을 영위

건설장비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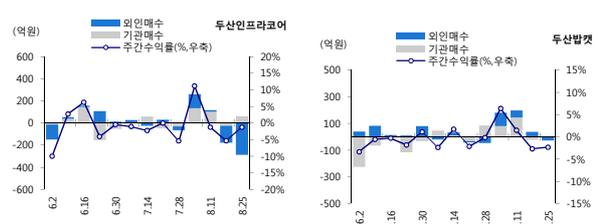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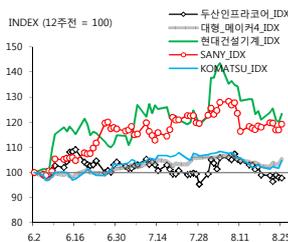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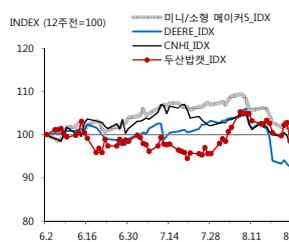
▶ 건설장비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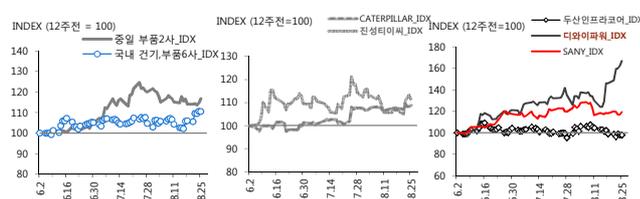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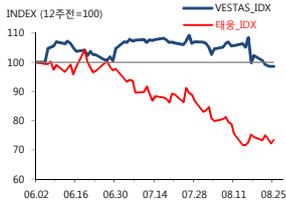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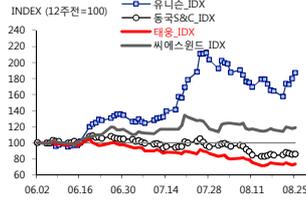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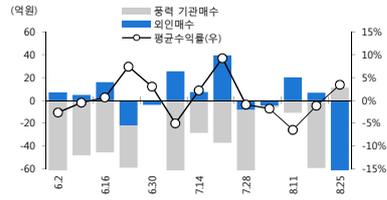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5사 vs Global Peer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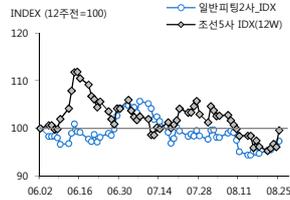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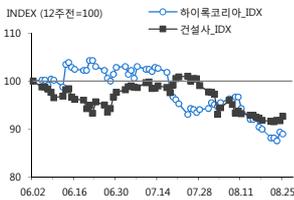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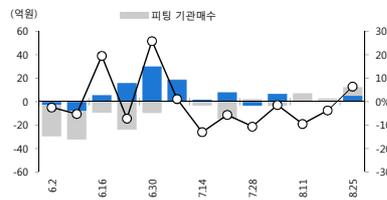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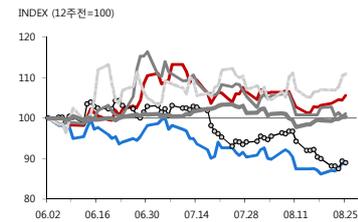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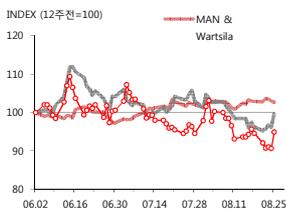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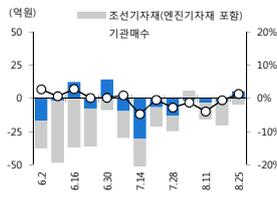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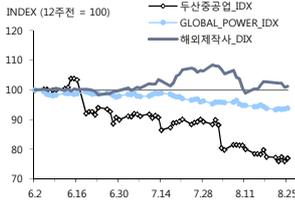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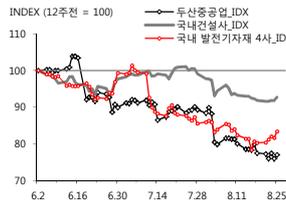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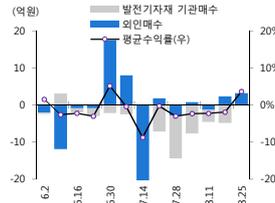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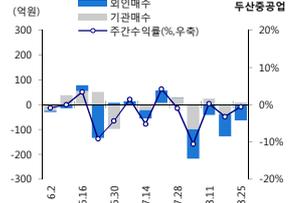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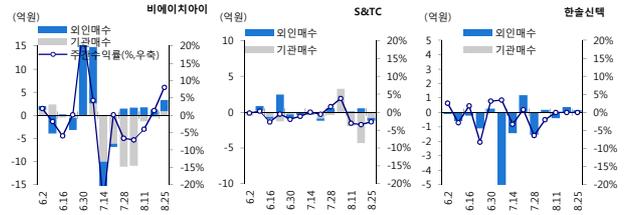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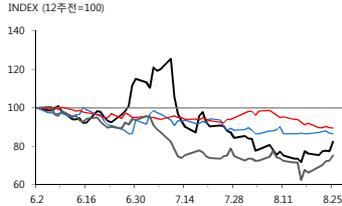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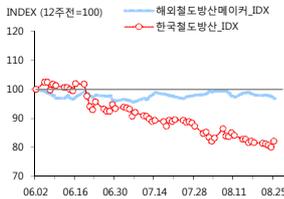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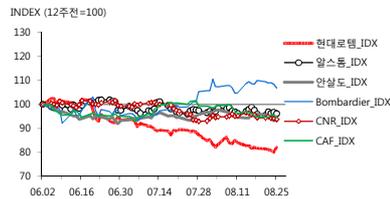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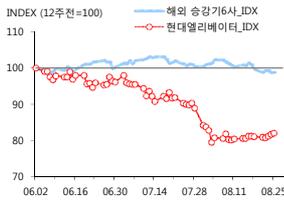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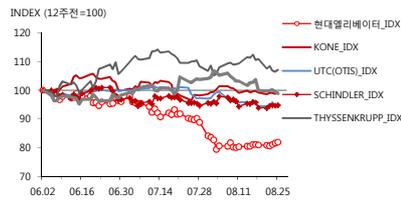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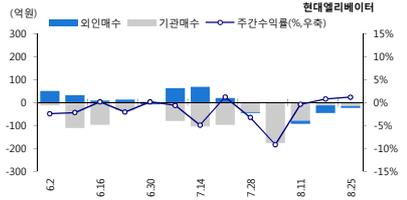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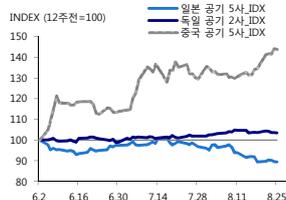


공작기계

▶ 두산인프라~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에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 권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 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